



EVANGELIA TODAY

MONTHLY NEWSLETTER



총장 메시지

MESSAGE FROM THE PRESIDENT

사랑하는 EU 가족 여러분

Dear EU Family

DR. JONG KUK KIM, EU PRESIDENT



총장 김종국 박사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단순한 마무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배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또한 5월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에반겔리아대학교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As May unfolds in its fullness, we pray that each of you continues to walk faithfully in the grace of God. As we approach the end of the semester, may this be more than just a time to wrap up responsibilities. Instead, may it becom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God has been at work in your life and learning.

In a world marked by war and conflict, we are reminded to draw closer to God. Our hope does not rest in changing circumstances, but in the unchanging kingdom of God. This is a time to be grounded in His Word and strengthened through prayer, living out the gospel in both word and life.

May is also a season of completion. As you finish the semester, remember the dedication you have shown and remain faithful to the calling entrusted to you. Above all, do not lose your heart for others. God, who looks not only at results but at the heart, will bring forth fruit in His time.

May the Evangelia University community continue to be strengthened as we encourage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We pray that the peace of the Lord will be with you in every step throughout this month.

기도제목

Prayer Request

1. 정기이사회(5월 27-28일) 학교의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논의와 방향 설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도록
2. 졸업식(5월 28일 오후 3시): 졸업생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과 소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학교 공동체가 기쁨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3. 릴리 재단 지원 프로그램 제안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고, 필요한 재정과 기회가 열리도록 (제출기한: 5/15)
4. TRACS 인가 준비: 인가를 위한 모든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의 사명과 비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 Board of Trustees Meeting (May 27-28): Pray that the Lord would grant His wisdom to every decision, guiding each discussion according to His will.
- Commencement (May 28): Pray that the graduates would walk faithfully in God's calling with clarity and purpose, and that the community may rejoice with thanksgiving.
- Lilly Endowment Initiative Proposal: Pray that this work would be prepared in obedience to God's leading, and that He would graciously provide the needed resources. (Due 5/15)
- TRACS Accreditation Preparation: Pray that the Lord would graciously guide each step of the preparation, so that all may proceed smoothly and the school's mission and vision be clearly and faithfully reflected.

**에반겔리아대학교-한동대학교
전인지능 기반 협약 (HI Alliance) 체결**
글로벌 신학·목회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확대



에반겔리아대학교(Evangelia University)는 한동대학교와 HI Alliance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학 및 목회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본교 김종국 총장을 비롯해 국제학생개발 디렉터 정인홍 교수 등 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 기관 간 협력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양교는 전인지능(Holistic Intelligence, HI)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학생 교류 및 진학 연계, 장학 프로그램 운영, 국제개발·봉사학습 및 창업 프로그램 공동 추진, 온라인 강의와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동대학교 개방형 교육 플랫폼 HOPE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협약에는 한동대학교 외국인 졸업생이 본교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신학적 전문성과 영적 리더십을 갖춘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로가 마련되었다.

김종국 총장은 “한동대학교를 통해 훈련된 국제 학생들이 본교에서 신학적 깊이와 목회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반겔리아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복음에 뿌리내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HI Alliance를 통한 국제적 교육 협력 속에서, 교회와 세계를 섬길 다음 세대 신학자와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vangelia University-Handong Global University Sign
HI Alliance Agreement**
Expanding Collaboration for the Formation of Global
Leaders in Theology and Ministry

Evangelia University has entered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Handong Global University under the Holistic Intelligence (HI) Alliance, establishing a partnership to cultivate global leaders in theology and ministry. Representing Evangelia University were President Kim Jong-guk and Dr. Andy Tschong, Director of Global Student Development, along with other leaders.

Through this agreement, both institutions will collaborate in student exchange, scholarship programs, and joint initiatives in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ervice-learning, as well as online courses and co-developed curricula. The partnership also includes participation in the HOPE open education platform.

We offer scholarships to qualified international graduates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pursuing graduate studies at Evangelia University, providing a clear pathway for advanced theological training and leadership development.

President Kim stated that Evangelia University will actively support these students as they grow in theological depth and spiritual maturity. Through this partnership, the university seeks to further its mission of forming gospel-centered leaders and to contribute to the global Church through the HI Alliance.



교수 역량강화 세미나 시리즈 시작

에반겔리아대학교는 릴리재단의 지원으로 교수역량강화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강순혜 교수가 역량기반 신학교육의 기초적 주제를 발제하였으며, 교수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식뿐 아니라 영성과 사역 역량을 함께 형성하는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Faculty Enrichment Seminar Series Launched

Evangelia University has launched its Faculty Development Seminar Series, supported by a Lilly Endowment grant. The first session, led by Professor Soonhae Kang, introduced foundational themes in 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 Faculty engaged in discussion on forming not only knowledge, but also spiritual depth and ministry competencie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ducational landscape.

“영원을 향한 인생 여정, 복음과 십자가로 살다”
故 이보민 교수 천국입성예배 엄수

“A Life Journey Toward Eternity: Living
by the Gospel and the Cross.”
Funeral Service Held for the Late Dr. Lee Bomin



본교 윤리학 교수로 섬겨온 故 이보민 교수의 천국입성예배가 본교 강당에서 학교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유가족과 친지, 서부노회 목회자, 제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삶과 신앙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예배는 김종국 총장의 집례로 진행되었으며, 기도와 성경봉독에 이어 박대근 목사가 시편 90편 3-12절을 본문으로 “영원을 향한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설교는 항암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었던 고인의 신앙을 조명하며, 개혁신학에 대한 헌신과 교육 사역을 통해 세워진 열매들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며, 남은 이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권면하였다.

가족들은 고인이 평소 음악을 사랑하며 찬송과 아리아를 즐겨 부르셨던 것을 추모하며 찬양과 연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고, 예배를 더욱 깊은 울림 속으로 이끌었다.

추모사에서 유하기 목사는 고인을 제자를 사랑하고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인의 모범으로 회고하였고, 이어 생애 소개를 통해 그의 학문적 여정과 목회 사역이 조명되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물리학과 (B.S.)를 졸업한 후 고려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코넬리우스 반달 박사 문하에서 변증학을 연구하고 신학석사(Th.M.)를, 이어 네덜란드 개혁교회신학교(캄펜)에서 요아킴 다우마 교수 문하에서 윤리학으로 신학박사 학위(Th.D.)를 받았다. 이후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교회와 학문을 아우르는 사역에 헌신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본교 교수와 교무처장으로 섬기며 교육과 행정 양면에서 귀한 기여를 남겼다.

평생 복음과 개혁신학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고인은 2026년 3월 28일, 향년 8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는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복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한 신학자의 여정을 깊은 감사와 경외 가운데 배웅하였다.

A funeral service for the late Professor Lee Bomin, who faithfully served as Professor of Ethics at this institution, was solemnly held in the university chapel. About 100 attendees—including family, pastors, and former students—gathered in reverent remembrance of his life and faith.

Officiated by President Kim Jong-guk, the service included a sermon by Rev. Park Daegeun on Psalm 90:3-12. The message highlighted Professor Lee’s steadfast faith, keeping the cross and the gospel central even amid suffering, and affirmed his lifelong devotion to Reformed theology and to teaching. It also proclaimed his rest in God’s eternal kingdom and called all present to live with an eternal perspective.

Family members offered musical tributes reflecting his love for hymns and sacred music, deepening the solemnity of the service. In a memorial address, Rev. Yoo Hagi remembered him as a humble servant who loved his students. His academic journey—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to Korea Theological Seminary (M.Div.), and advanced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was also recounted. He later served at Kosin University, Korea Theological Seminary, and this institution (1999–2011) as professor and academic dean.

Dr. Lee, who lived a life centered on the gospel, was called to the Lord on March 28, 2026, at the age of 82. The service concluded with a benediction, as attendees gave thanks for his faithful witness in both word and life.

김진흥 박사
교목 및 교회사 부교수 임명



김진흥 박사가 본교 교목으로 4월 29일 입국하였고, 교회사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B.A.)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고려신학대학원(M.Div.)을 거쳐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Th.D.)를 전공하였다. 칼빈과 피터 마더 버미글리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고신대학교와 시드니신학대학교 등에서 교회사와 조직신학을 가르쳤으며, 최근 EU 교회사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조미영 사모와의 사이에 세 딸을 두고 있다.

Dr. Jin Heung Kim has been appointed as Associate Professor of Church History at Evangelia University and will arrive on April 29 to serve as the university chaplain. He earned his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M.Div. from Korea Theological Seminary, and completed his doctoral studies in Reformation History in Kampen, the Netherlands, focusing on John Calvin and Peter Martyr Vermigli. He has taught at Kosin University and Sydney Theological College. He and his wife, Miyoung Cho, have three daughters.

2026 Commencement Announcement
졸업식 안내

Evangelia University Commencement will be held on Thursday, May 28 at 3:00 PM in the University Chapel and via Zoom. All are warmly invited to join us in celebrating our graduates.

EU 동문회 피크닉

4월 후원자 (Supporters in April)

2026년 4월 18일, EU 동문회는 부에나파크 Ralph B. Clark Park 에서 두 번째 연례 피크닉을 개최하였다. 행사는 예배(오전 10시 30분), 식사(오전 11시), 강의 및 퀴즈(오후 12시)로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노년 준비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번 모임은 동문과 교수진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음식 준비와 행사 진행을 맡은 이들의 수고로 이루어졌다. EU 동문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로서 연합을 이어가고자 한다.



EU Alumni Picnic

On April 18, 2026, the EU Alumni Association held its second annual picnic at Ralph B. Clark Park in Buena Park. The program included worship (10:30 AM), a shared meal (11:00 AM), and a lecture with a quiz (12:00 PM). The session focused on preparing for later life. The event was made possible by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alumni and faculty, along with the contributions of those who helped prepare food, organize activities, and support the gathering. The EU Alumni Association aims to continue building a united community that serves in various ministry contexts.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테인 기 린(미얀마)

저는 1995년 만달레이에서 기독교인 어머니와 불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곱 살 때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기독교인 친구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와 주일학교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열한 살 때 여름 성경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역자로 섬기고자 하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미얀마 개혁장로신학교(MRPST)에서 신학 학사를 마쳤고, 이후 2023년 예반겔리아 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오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불교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MRPST 유아교육학과에서 가르치며 기독교 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을 더 깊이 연구하여, 신실한 사역자이자 교육자로 섬기며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쁨과 그리스도 중심의 배움의 장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General Fund: Andy Tschong (정인홍 교수), Chuen Wook Park (박천욱 장로), Dr. Bo Min Lee's Family (이보민 박사 가족), Garden Presbyterian Church (가든교회, 남지현 목사), Heaven Dream Church (하늘꿈 교회, 정인석 목사), Ho Mok and Kyung Ae Lee (이호목 장로, 이경애 권사), Hwan Sik Chung (정환식 장로), Mijung Kim (김미정 집사), David and Eunha Shin (신성재 장로), Calvary Korean Presbyterian Church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원차희 목사), Federal Way Central Presbyterian Church (헤드럴웨이중앙장로교회, 김태연 목사), Joo Sarang Church (주사랑 교회, 김신영 목사), Korean Church of Manhattan (맨하탄 한인교회, 이성은 목사),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목사), Korean Church of Salem (셀렘 한인교회, 문영주 목사),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Denver (덴버소망교회, 안성훈 목사), Morning Dew Presbyterian Church (새벽이슬교회, 윤해규 목사), Rothem Presbyterian Church (로them장로교회, 박일룡 목사), San Jose Presbyterian Church (산호세장로교회, 박석현 목사)

LIFT Fund: Chang Rok Woo (우창록 장로)

Student Spotlight: Thein Gi Lin (Myanmar)

I was born in 1995 in Mandalay to a Christian mother and a Buddhist father. At the age of seven, during a difficult time for my family, I was led to stay with a Christian friend of my mother. There, I began attending church and Sunday school regularly and ca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t the age of eleven, through a summer Bible camp, God placed in my heart a calling to serve Him in ministry.

Trusting in God's provision, I completed my Bachelor of Theology at the 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RPST). In 2023, I began my Master of Divinity program at Evangelia University and am now approaching graduation. Through this journey, I have come to see more clearly how faithfully God has guided me step by step.

My calling has become especially clear through ministry with children and youth. In Myanmar, where Buddhism is the majority religion, sharing the gospel with the next gener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I currently serve in my church by teaching children, listening to their struggles, and helping them come to know the love of Christ. Many young people in Myanmar are growing up amid fear and uncertainty, and I desire for them to find true hope in God.

I also teach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MRPST and have a strong passion for training Christian educators. I hope to pursue further stud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o that I may serve as both a faithful minister and educator,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joyful, Christ-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in Myanmar.



EVANGELIA UNIVERSITY

Phone: (714) 527-0691
info@evangelia.edu
www.evangelia.edu